

ARRI ALEXA Mini LF

‘킹덤: 아신전(Kingdom: Ashin of the North)’에서
성능을 증명하다



한국의 고락선 촬영감독은 음산한 분위기의 촬영기법이 특징인 ‘킹덤: 아신전’에서 ARRI ALEXA Mini LF의 HDR과 ACES 호환성의 도움을 받아 사실적인 이미지와 실감 나는 컬러감을 구현했습니다.

Netflix의 ‘킹덤: 아신전’은 ‘킹덤’ 시리즈의 시대에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신의 원한과 복수 그리고 좀비의 시작과 서사를 그린 작품입니다. ALEXA Mini LF를 사용하여 어둡고 비밀스러운 서사를 완벽하게 화면에 재현한 고락선 촬영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킹덤’ 시리즈에서 보여진 공간과 아신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지도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킹덤 시리즈에서는 궁 안에서의 권력 다툼이 이야기의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면, 이 작품은 북방 작은 마을의 소녀가 느끼는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들이 아신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킹덤: 아신전’은 아신의 복수를 담은 이야기이면서 그녀가 어떻게 좀비의 침략에 맞서는지 보여준다



이 시리즈는 견고함과 놀라운 성능을 겸비한 ALEXA Mini LF를 이용해 촬영했다

‘택시운전사(Taxi Driver)’의 촬영을 담당하기도 했던 고락선 감독은 최대한 북방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극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감독과 스태프는 많은 어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고락선 감독은 이렇게 당시를 회상합니다. “바위 투성이인 산속에서 달리는 장면이 많아서 배우와 그립팀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파저워 족장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간척지에서 촬영했는데 말이 진흙 바닥을 잘 달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모래폭풍처럼 먼지를 일으켜야 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처럼 거친 촬영 현장에서 ALEXA Mini LF는 탁월한 선택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ALEXA Mini LF는 4K 촬영을 지원하면서도 경량화되어 있고, 컬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카메라입니다. ALEXA Mini LF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라고 고 감독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촛불, 햇불, 달빛 등을 주된 광원으로 하여 언더 노출 촬영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 감독은 “보통은 조명 장치를 사용해서 빛이 흔들리는 효과를 만들어 내지만, 아신전은 실제 촛불의 일렁임이 화면에 담길 정도로 낮은 노출로 촬영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촬영한 장면도 진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HDR 계조의 리미트까지 사용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작업할 때 높은 콘트라스트 비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킹덤: 아신전'의 등굴 장면은 ALEXA Mini LF의 HDR 덕분에 높은 완성도로 표현되었다



고락선 촬영감독과 스태프는 ALEXA Mini LF를 사용해서 어둠 속에서도 최소한의 광원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Mini LF의 컬러 정확도 역시 고락선 촬영감독이 Mini LF를 이번 시리즈에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HDR을 구현하는 ALEXA Mini LF는 작품을 빛내는 최상의 카메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영화계에서 베테랑 촬영감독으로 통하는 고락선 감독은 “사극은 일반적으로 극한의 조명 상태에서 촬영하게 되는데 ALEXA Mini LF를 사용해서 근사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어두운 영역에서부터 하이라이트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작품에서는 보통 언더 2stop ~ 2stop1/2 정도로 촬영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언더 3stop ~ 3stop1/2로 촬영해서 최소한의 광원으로 현실감 넘치는 장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명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컬러 표현 역시 이번 촬영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고 감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나무의 초록색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추파진의 군영은 벌목된 나무의 갈색과 전쟁으로 타버린 나무의 회색빛이 두드러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 감독은 ACES와 호환 가능한 Mini LF를 사용함으로써 카메라에서 스크린까지 일관된 컬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락선 감독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촬영 전에 미리 컬러를 선택해서 여러 계조의 색이 무분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채도를 낮추고 컨트라스트가 강한 LUT를 사용했으며, 색온도 세팅값을 조절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색보정에 Baselight를 사용하고 Dolby Vision HDR로 작업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첨단 극장 시스템과 다양한 OTT 매체가 등장하는 가운데 영화 제작자는 다양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고 감독은 이러한 관점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ARRI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감독으로서 작품마다 만들어 내야 하는 이미지가 다양한데 ARRI 카메라와 조명시스템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